
碩士學位請求論文

體罰에 대한 教師와 學生의 態度調査 研究

— 濟州市 中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 會 教 育 專 攻

金 辰 姬

1997年 8月

體罰에 대한 教師와 學生의 態度調査 研究

— 濟州市 中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辰 姬



金辰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許 錫 祖 (인)

審査委員 金 恒 元 (인)

審査委員 朴 龍 炯 (인)

〈抄錄〉

體罰에 대한 教師와 學生의 態度調查 研究

--- 濟州市 中學校를 中心으로 ---

金 辰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체벌의 실태를 살펴보고,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태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교육방법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체벌에 대한 견해 및 체벌의 효과, 체벌의 실태,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체벌 사용의지 등 3개 영역 2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주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248명, 학생 63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빈도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P < 0.001 \sim P < 0.01$ 수준에서 χ^2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86.0%)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활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체벌을 하고(받고)있으며 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때(34.1%), 학습태도가 나쁠때(21.3%) 체벌을 하는(받는)경향이 많았다.

둘째, 체벌은 나쁜 습관이나 학습태도의 교정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효과의 지속성은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방법으로는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엉덩이를 때린다, 종아리를 때린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벌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64.4%)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체벌과정은 벌 받은 이유를 인식시킨 다음 체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체벌에 대한 감정개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정이 가끔 개입된다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50.3%)가 가장 높았고 집단별로는 교사집단보다 학생집단에서 높았다. 한편 체벌 후의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전체적 경향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46.3%)가 가장 높았고 학생집단에서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거리감이 느껴졌다(43.2%)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체벌의 관점은 주로 결과(56.2%)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항의를 받은 사례는 적었으나 항의의 주원인으로는 교사의 체벌이 감정적이었기 때문과 체벌이 지나쳤기(32.9%)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앞으로의 체벌 사용의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는 필요시 활용하겠다(57.3%)에 높은 응답을 하였고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51.7%)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98년 체벌금지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 교사집단에서는 반대한다(81.9%)에 높은 응답을 하였고 학생집단은 찬성한다(52.3%)에 높은 응답을 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상 체벌을 한다지만, 그 결과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이 사실이므로 체벌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체벌은 학생들의 행동수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교사는 인격적인 강화를 지도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교육적인 의도하에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은 되도록 줄여 나가도록 하고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체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사는 체벌 행사에 있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겠다.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까지 신중한 판단하에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을 피교육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감정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셋째, 체벌시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 애정적 유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일정한 체벌기준을 마련하여 체벌의 일관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겠다

目 次

I . 序論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2
II . 理論的 背景	
1. 體罰에 대한 定義	3
2. 體罰에 대한 教育史的 考察	4
3. 體罰에 대한 見解	8
III . 研究의 方法	
1. 調査道具	13
2. 標集	13
3. 資料處理	15
IV . 結果와 論議	
1. 體罰에 대한 一般的 見解와 體罰의 效果	16
2. 體罰實態	22
3. 體罰 사용의지	38
V . 結論 : 要約과 提言	42
· 參考文獻	46
· 英文抄錄	48
· 質問紙	51

表 目 次

표 1.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및 문항	14
표 2. 질문지 배부 및 현황	14
표 3.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15
표 4. 체벌의 필요성	16
표 5. 체벌이 필요한 이유	18
표 6. 체벌이 불필요한 이유	19
표 7. 체벌의 효과정도	19
표 8. 체벌 효과의 지속정도	20
표 9. 체벌의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	22
표 10. 체벌 경험의 여부	23
표 11. 체벌을 가하는 경우	24
표 12. 체벌의 기준	25
표 13. 체벌의 과정	26
표 14-1. 1순위로 많이 사용하는 체벌	28
표 14-2. 2순위로 많이 사용하는 체벌	29
표 14-3. 3순위로 많이 사용하는 체벌	30
표 15. 체벌장소	31
표 16. 체벌 후의 심정	32
표 17. 체벌과정에서의 감정개입	33
표 18.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34
표 19. 체벌에 대한 관점	35
표 20. 체벌을 가하는 시기	36
표 21. 체벌후 항의에 대한 경험 여부	37
표 22. 체벌후 항의를 받은 이유	37
표 23. 체벌후의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 양상	38
표 24. 앞으로의 교육활동에서 체벌의 필요성	39
표 25. 체벌금지 방안에 대한 견해	40
표 26. 앞으로의 체벌사용에 대한 교사의 관점	41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학교 교육현장에서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 체벌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의 삶과 더불어 출발되었고 교육의 역사와 더불어 체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회복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사상과 인본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으로 체벌에 대한 문제는 그 찬반의 논의가 깊어갔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역사가 길고 그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피력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도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체벌을 인간행동의 통제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동양사회에서는 서당이나 가정에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예사였으며,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이스의 도시국가에서는 체벌이 성행하였다. 특히 스파르타식 교육은 지금도 하나의 교육훈련방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로마시대에서의 체벌은 수치심이나 극기심을 기르고 잘못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보아 그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이처럼 체벌에 대한 찬반론이 있듯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체벌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행동통제의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것이며,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체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체벌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벌이 교육적으로 주장하는 것 만큼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체벌은 중세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체벌을 통한 교육을 행해 왔다. 또한 교사직을 '교편 생활'이라 칭할 정도로 체벌은 우리나라 교육에 실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여 왔다.

그런데 얼마전, 98학년도부터는 체벌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실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체벌은 학생의 자발성을 억제하고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지만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들은 체벌을 전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실태와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태도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봄으로써 교육방법 개선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의 실태와 교사와 학생간의 체벌에 대한 태도를 조사,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제주도 전 중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주도 7개교를 중심으로 무작위 표집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체벌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실태, 체벌사용의지 등 23문항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체벌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질문지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Ⅱ. 理論的 背景

1. 體罰에 대한 定義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다양한 체벌이 주어지고 있다.

벌이란 용어는 의미가 다양하여 많은 애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벌은 '어떤 부정적 반응이 일어난 뒤에 주어지는 것으로 그 반응빈도를 감소시키는 상황'¹⁾이다.

체벌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특정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희승은 체벌을 “행위의 금지, 관습의 파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에 부여된 불쾌한 자극이다”²⁾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학사전에서는 “학업의 부진이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려한다든가 그 잘못을 교정하려는 방법”³⁾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신체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벌도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체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체벌을 구체적으로 개념정의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때리고 발로 차는 것,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둘째, 용변을 못보게 하거나 식사시간이 지나도록 식사를 할 수 없도록 잡아두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함으로 체벌이 된다.

셋째, 지각이나 태만한 경우 청소당번의 회수를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부당한 차별이나 혹사를 시키는 행위

1) 이성진(1981), 「 학교에서의 행동수정 », 배영사, p.168.

2) 이희승(1975), 「 국어대사전 », 민중서관, p.2813.

3) 서명원(1972), 「 교육학대사전 », 교육과학사, p.942.

4) 이동옥(1976), “민주주의 교육”, 학생지도 제18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p.69.

넷째, 도난사고시 그 학생이나 증인을 방과후에 심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다섯째, 수업시간중 태만하거나 떠들었다고 해서 교실밖으로 나가게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여섯째, 물건을 훔치거나 부숴버리는 경우 골탕을 먹이는 의미에서 장시간 남겨놓는 행위

일곱째, 고의적으로 정신적인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을 주는 행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공포감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적인 강제수단이라는 것이다.

두 입장 모두 체벌이 훈육을 위한 교육벌이라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전자의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벌에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정신적인 벌까지도 체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의도적으로 고통을 줄 것, 권위를 가진 사람이 줄 것,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줄 것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⁵⁾

위에서 살펴본 체벌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체벌이란 훈육을 위한 교육적인 벌로써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징계행위이다.

2. 體罰에 대한 教育史的 考察

(1) 韓國教育史的 側面

한국교육사에 나타난 체벌에 대한 언급은 문헌상 조선시대부터이다.

조선조에 유교적 윤리와 규범이 절대 권위로서 교육되었을 때에 체벌은 공인

5) R.S. Peters 저, (이홍우 역:1981)), 「 윤리학과 교육 」, 교육과학사, p.296.

되어 있었고 권장되기조차 했었다. 서당에 자식을 처음 보낼 때 아버지는 훈장에게 매를 한 묶음 만들어 보내는 것이 당연한 예처럼 되어 있었다.⁶⁾

전통적으로 서당에서는 훈장이 서생들에게 학업의 촉진과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잘못된 학생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고, 사부학당에서는 숙제를 안했거나 교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태를 가하는 교형도 있었다.⁷⁾ 성균관에서도 유생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가동에게 벌을 가하는 인가동법을 만들었다고 한다.⁸⁾

일제시대의 체벌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과 군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군대식 벌이 많았다. 일제시대의 학교 교육에서 체벌이 보편화되었던 것은 당시의 교육이 일제 군국주의가 갖는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들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절대주의의 권위를 내면화시켜야만 하는 식민지교육에서는 체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⁹⁾ 이처럼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의 체벌은 유교 사상과 군국주의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는 면책, 회초리 태 등이 있었으며, 일제시대에는 군대식 벌이 많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교육에서 벗어나 한국의 전통문화적 배경없이 서구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이 후 한국의 학교 교육은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아동중심 교육이념이 깊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과거의 엄격한 훈육중심의 교육방법을 배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행하여져 왔고 더욱 다양해졌다.

(2) 西洋教育史的 側面

무릇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에 가는 일'과 '회초리로 매맞는 일'은 동

6) 김인회(1994), 「새시대를 위한 교육의 이해」, 문음사, p. 294.

7) 이광린(1968), "조선의 사부학당", 「역사학보」 제16집, p.219.

8)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 36집. 1968 p.215.

9) 김인회(1994), 앞의 책, p.294.

의어라고도 일컬어졌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사가인 파울 몬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젊은이를 단련해 올리는데에 유효한 수단으로 체벌을 필요로 한다는 신념을 가졌을 만큼 어느 세계,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체벌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 들여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¹⁰⁾

교육에 있어서 체벌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했던 스파르타에서는 국가의 존속을 위한 강한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신체검사를 하여 약한 아이는 처음부터 산에 버리고 7세부터 30세까지 기숙사 또는 병영에서 엄격한 훈련과 규율아래 생활하게 하였다. 스파르타에서는 좋은 시민이란 훌륭한 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자비한 체벌로써 군대식 훈련방법, 전투방법을 사용한 군국주의 교육이었다.¹¹⁾ 교양교육을 중시하고 체벌을 금했던 아테네에서도 특히 남아의 훈련에 있어서는 체벌이 활용되었다. 그것은 희극시인인 메난드르스(Menandrus)의 “맞지 않은 인간은 교육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시구로도 여실히 그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¹²⁾

로마시대에도 체벌은 널리 행해져 “가정교육에서 부모는 체벌은 물론 죽이거나 팔아버릴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¹³⁾ 고 한다. 일찍이 진보적 교육방법을 취한 세네카(Seneca)도 “엄격한 훈계와 호책을 강조하여 현명한 징벌은 의과와의 메스와 같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힌 것” 이라고 당시의 로마시대에 유행했던 체벌중심교육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신앙적인 고행, 기사교육에서 명예로운 기사가 되기 위한 단련을 받았으며, 기술을 익히기 위한 직업교육에서 엄한 훈련이 행해지고 체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별다른 비판없이 행사되어 졌다.

고대와 중세에 훈육의 중요한 방법이었던 체벌은 근대에 와서 많은 교육사상가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체벌에 대한 비판은 고대 희랍시대의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문예부흥에 와서야 본격적으

10) 沖原豊 저, 박준희 역(1982), 「 학교체벌 », 정민사, p.69.

11) 손인수(1987), 「 교육사 교육철학 연구 », 문음사, pp.51-52.

12) 沖原豊 저, 박준희 역(1982), 앞의 책, p.90

13) 김용기(1955), 「 서양교육사 », 문헌사, p.19.

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루터(Luter)나 에라스무스(Erasmus) 등의 인문주의 교육사상가들은 체벌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가하였고 아동중심에 입각한 자유주의 자발교육 및 생활교육을 역설하였다.¹⁴⁾ 루터(Luter)는 우리들의 학교는 더 이상 아동들의 매와 공포에 시달리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탄하였다. 몽테뉴(Montaigne)도 학교란 마치 청춘의 감옥과도 같다. 거기서 들리는 것은 교사의 노기찬 설교와 벌을 받는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뿐이다.¹⁵⁾라고 하며 폭력적인 학교 훈련법에 대해 일침을 가하였다.

한편 루소(Rousseau)는 일체의 인위적인 벌은 배격하고 자연적 벌을 주장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¹⁶⁾ 페스탈로찌(Pestalozzi), 로크(Locke), 로메니우스(Lomenius), 톨스토이(Tolstoi)도 체벌을 무분별하게 행한 것이나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악행을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랑의 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¹⁷⁾

이처럼 근대 이후 체벌을 비판한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체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은 체벌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나 그 마음가짐과 방법이 문제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듀이(Dewey) 이후 아동중심 흥미위주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체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었으나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발사 이후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뒤늦게 등장한 향존주의 교육사상가들과 많은 현장 교사들에 의해 다시 훈육의 수단으로서 체벌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체벌의 판례들을 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바르게 행사되었을 때는 교사의 교육권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교사 폭력 급증으로 3년간 5명이 숨진”¹⁸⁾ 체벌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우

14) 안상원(1983), 「 교육사 », 재동문화사, pp.204-224.

15) 안상원(1963), 「 한국 서양 교육사 », 박영사, p.63

16) 정금선(1976),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p.31-35.

17) 김연호(1983), “체벌의 수용도가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p.11-12.

리나라에서도 지난 1990년 10월 30일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학생 체벌에 대한 징계의 한계와 교육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 처럼 체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교육사에 있어서나 서양교육사에 있어서 체벌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이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여 왔으며,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는 시대에 따라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뿐 오늘날까지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3. 體罰에 대한 見解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위하여 체벌이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논의되어 왔다.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인간 존중 측면에서 체벌 사용을 부정하는 의견들도 있다. 여기서는 체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體罰에 대한 肯定的 見解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 체벌을 긍정하는 교육사상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라톤(Platon)은 체벌을 긍정하는 이유로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습성적인 그릇된 행동을 제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¹⁸⁾라고 주장했다. 이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원리에 입각한 체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페스탈로찌(Pestalozzi)는 체벌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므로 되도록

18) 동아일보(1988. 7. 16), “일본 교육계 체벌논쟁 재연”

19) 김정환, 「전인교육론」, 세영사, 1982. p.157.

억제하여야 하지만 강한 훈련과정, 체벌에 대해 부모가 이해를 하고 교사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을 경우, 버릇없는 아이를 바로 잡을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벌을 받음으로써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아이를 고무해주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주장하였다.²⁰⁾ 그는 체벌에 대해 부모의 이해와 부모가 교사를 신임하고 있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체벌을 행함에 있어 부모의 인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주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드너(Gadner)는 벌이 학습을 쉽게 할 뿐 아니라 벌에 의한 자극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유능한 교사는 최소한의 벌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²¹⁾

沖原豊은 그의 저서를 통해 체벌의 필요성을 세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악을 추방하고 교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체벌은 유효하고도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체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학교나 학급의 질서나 규율의 유지를 위해서이다. 질서나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나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학생을 방임해 두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다른 아동과 학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대로 방치하는 일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량하고 진실한 다른 아동과 학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²⁾

다섯째, 김정환 교수는 체벌이 옳게만 가해지면 사람됨을 일깨워주는 데 아주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라는 점, 체벌이 가혹하게 가해지는 현실은 체벌을 교육방법으로 공인하지 않는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점, '사랑의 매'는 문자 그대로 '사랑의 매'이기에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의 애정과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는다는 점²³⁾을 들어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體罰에 대한 否定的 見解

20) 김정환(1982), 「페스타로찌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pp.162-163.

21) 나신규(1989),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성립근거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22) 忠原豊 저, 박준희 역(1982), 앞의 책, pp.90-98.

23) 김정환(1983),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본 체벌론", 「새교육」, p.51.

체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체벌을 부정하는 교육학자 및 교사들은 인간은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은 자발성을 억제하고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여 체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체벌을 부정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지만,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는 능력있는 교사라면 비효과적이고 불필요한 체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벌은 교육방법 중에서 가장 졸렬한 방식으로 습성화되기 쉬우며, 공포심과 정신적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노예를 대상으로 하는 체벌을 자유인에게 가해서는 안된다고 사용을 반대하였다.²⁴⁾

에라스무스(Erasmus)는 당시 학교에 있어서의 회초리 교육을 크게 비난하여 인간애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교육의 실시를 주장하고 자유인은 체벌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체벌은 자유인을 노예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²⁵⁾고 주장하였다.

자연의 섭리에 의한 교육을 주장한 루소(Rousseau)의 성선설 입장에서 니힐(A.S.Neil)은 그의 실험학교 썸머힐(Summerhill)에서 어린이들이 자신에 의한 규제외에는 아무런 외적인 억압이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놓아주고 어린이를 관찰한 후 어린이의 본성을 선택하며 성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대하므로 억압이나 간섭 혹은 체벌보다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교육하여야 한다²⁶⁾고 하였다.

쿠닌(Kounin)은 벌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주의와 강조를 두기 때문에 학습 참여를 저해하고 긴장 수준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²⁷⁾하여 체벌을 부정하였다.

권오익도 교육의 이념적, 방법적 측면에서 학생의 인성발달,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에 있어 체벌이라는 교육방법이 지니고 있는 탈교육적인 역기능 때문

24) H. Ginott 저, 정우현 역(1977), 「교사와 학생」, 익문사, p.141

25) 차석기(1981), 「서양교육사」, 집문당, p.84.

26) 김은산(1983), “자녀교육과정에서의 체벌문제”, 「새교육」 통권 346호 p.64.

27) 김정규, 권낙원 (1988), 「교사와 교육」, 형설출판사, p.156.

에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해 나가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폭력화한 체벌은 지양되어야 한다²⁸⁾고 주장하였다.

교육과 관련하여 체벌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육의 본질은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다. 인간이란 미덕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별로서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하여 체벌의 행사를 부정한다.²⁹⁾

둘째, 체벌이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현상은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철학의 빈곤이 가져온 역조현상³⁰⁾이다.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폭력적 체벌은 비민주적 행위이며,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추구하는 교육현장에서 단호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체벌은 성격형성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증오자가 되고 불안하고 반항심을 갖게 되며 이중적인 성격과 순수성을 잃게 된다. 또한 독립적이지 못하고 열등감 죄의식을 느껴 부정적이고 고집센 사람이 되며 공포심을 갖고 창의력이 상실되며 공격적이 된다.³¹⁾

넷째, 체벌의 권장은 사회 문제점의 표출이며 인간이기에 나타나는 폭력적 자기표현이 미화되고 규범화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교육의 강제력은 교육의 실패를 뜻한다.³²⁾

다섯째, 벌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압할 망정 행동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각종의 이상행동은 벌의 억압기능에 의해서 일단 억압되었으나 원천적으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여 일어나게 된다³³⁾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은 벌에 의한 행동의 통제는 다른 행동도 억압하여 자발성을 상실케 하거나 소극적인 행동만이 표면에 나타나게 하며 행동을 오해시

28) 권오익(1976), “체벌의 탈교육적 역기능”, 「교육연구」 pp.85-87.

29) H. Ginott. 저, 정우현 역(1977), 「교사와 학생」, 익문사, pp.141-147.

30) 권오익, 앞의 논문, pp.85-87.

31) 오청환(1976), “국민학교에서의 훈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25-29.

32) H. Giontt. 저, 정우현 역, 앞의 책, p.118.

33) 이성진(1981), 「행동수정의 원리」, 현대교육출판사, pp.169-170.

킬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등 정신위생상의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체벌을 부정하는 입장은 오늘의 현실적 상황에서 정당한 체벌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생에게 반발심을 야기시킬 수 있고, 체벌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체벌로 인해 청소년기에 학생에게 인격과 감정, 자아개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에 뒤 따르는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므로 가능한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研究의 方法

1. 調査道具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체벌에 대한 견해와 체벌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체벌실태를 조사, 비교하기 위해서 질문지는 교사용(A)과 학생용(B) 두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토대 보완,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문항내용은 체벌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관한 내용문항 7개, 체벌실태에 관한 내용문항 14개, 체벌사용의지에 관한 내용문항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질문시 유형의 문항은 선택형을 중심으로 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없을 때는 기타란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2. 標集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시 소재의 중학교에 교사와 학생 9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7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각 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조사결과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980부 배부, 977부 회수로 그 회수율은 99.6%였다.

질문지의 응답결과를 통계처리하기 위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96부를 제외시켜 실제로 유효한 대상은 871명이었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체벌에 대한 견해 및 처벌의 효과	체벌의 필요성 여부, 이유 체벌의 효과, 효과의 지속성 체벌효과영역	6	4-9
체벌실태	체벌 경험의 유무, 체벌을 가하는 경우, 체벌의 기준, 체벌 과정, 체벌 방법, 체벌 장소, 체벌후의 심정, 체벌시 감정 개입정도,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체벌 관점, 체벌 시기, 항의 경험의 유무와 이유, 체벌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	14	10-23
체벌사용의지	앞으로의 체벌 활용여부, 체벌금지방안에 대한 견해, 체벌행위에 대한 교사의 견해	3	24-26

〈표 2〉 질문지 배분 및 현황

	질문지배부수	회수된 수	제외된 수	유효한 수	회수율(%)
교사용	260	257	9	248	98.8
학생용	720	720	87	633	100
합 계	980	977	96	871	99.6

〈표 3〉 배경변인별 표집인원

	배경변인	변인구분	변인크기	변인구성비(%)	계
학 생	성 별	남	270	42.65	633
		여	363	57.34	
	학 년 별	1학년	249	39.33	633
		2학년	291	45.97	
		3학년	93	14.69	
	학 교 별	여자중	224	35.38	633
남자중		224	35.38		
남녀중		185	29.22		
교 사	성 별	남	139	56.04	248
		여	109	43.95	
	연 령 별	20대	13	5.24	248
		30대	129	52.01	
		40대	61	24.59	
		50대	36	14.51	
		60대	9	3.62	
	경 력 별	5년 이하	24	9.67	248
		6 - 10년	89	35.88	
		11 - 15년	37	14.91	
		16 - 20년	48	19.35	
21년 이상		50	20.16		

3. 資料處理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되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로 산출하였다. 또 이들 집단간의 문항별 응답의 유의한 차이가 의의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χ^2)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IV. 結果와 論議

결과와 논의는 각 문항에 대한 표집 대상자들의 반응 결과를 영역별 문항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제시하고, 둘째 교사와 학생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 논의하려고 한다.

1. 體罰에 대한 見解와 體罰의 效果

1) 체벌의 필요성

체벌의 교육적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지의 응답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체벌의 필요성

반응구분 \ 구분	교 사 N(%)	학 생 N(%)	전 체 N(%)
① 꼭 필요하다	38 (15.3)	23 (3.6)	61 (6.9)
② 필요할 때도 있다	202 (81.5)	495 (78.2)	697 (79.1)
③ 필요없다	8 (3.2)	115 (18.2)	123(13.9)
계	248 (100.0)	633 (100.0)	881 (100.0)
df	2		
x ²	63.89		
P	***0.0000		

교사와 학생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6.9%, 필요할 때도 있다에 79.1% 반응하고 있고, 체벌이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는 13.96%의 수준으로 나타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인 경우는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15.3%,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다에 81.5%가 응답을 하였으며, 필요없다고 대한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생집단에서는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3.6%,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다에 78.2%, 체벌이 필요없다고 18.2%로 나타났다.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모두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집단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 교사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체벌이 필요한 이유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는 ‘생활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74.6%), ‘학습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20.5%)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생모두 학습지면에서의 효과보다 생활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보면 체벌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설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체벌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사집단은 효과면에서 지속적이지 못하므로 57.1%, 설득을 통해 잘못을 고칠 수 있으므로 28.6%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벌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학생집단에서는

36.5%가 설득을 통해서도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없다고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4.8%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므로 체벌이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행연구인 문제준의 조사³⁴⁾에서는 체벌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효과면에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많았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득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으므로라는 견해도 높게 나타났으나 무응답자가 높게 나타나 체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많음을 암시해 주었다.

〈표 5〉 체벌이 필요한 이유

구분 반응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생활지도면	183 (76.6)	381 (73.7)	564 (74.6)
② 학습지도면	46 (19.2)	109 (21.1)	155 (4.8)
③ 기타	10 (4.2)	27 (5.2)	37 (4.8)
계	239	517	756
df	2		
χ^2	0.8099		
P	0.6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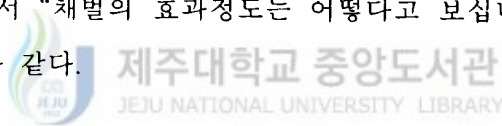
34) 문제준(1994), '국민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p.23.

〈표 6〉 체벌이 불필요한 이유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0(0.0)	40 (34.8)	40 (32.7)
②효과면에서 지속적이지 못하므로	4 (57.1)	25 (21.7)	29 (23.7)
③설득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고칠수 있으므로	2 (28.6)	42 (36.5)	44 (36.1)
④기 타	1 (14.3)	8 (7.0)	9 (7.3)
계	7	115	122
df	3		
χ^2	6.5102		
P	0.0893		

3) 체벌의 효과정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효과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설문 의 응답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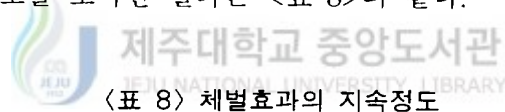
〈표 7〉 체벌의 효과정도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아주 효과가 있다	12 (4.8)	7 (1.1)	19 (2.2)
②효과가 있다.	225 (90.7)	371 (58.6)	596 (67.6)
③효과가 없다	11 (4.4)	225 (40.3)	266 (30.2)
계	248	633	881
df	2		
χ^2	114.53		
P	***0.0000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아주 효과가 있다는 2.2%, 효과가 있다는 67.6%, 효과가 없다는 30.1%로 나타나 전체 69.8%의 수준으로 체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교사집단은 아주 효과가 있다에 4.8%, 효과가 있다에 90.7%로 반응하고 있어 체벌의 효과면에서 학생집단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집단에서는 아주 효과가 있다에 7%, 효과가 있다에 58.6%로 응답함으로써 학생집단에서의 체벌의 효과성은 교사집단과는 그 비율이 낮다. 이것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효과가 없다는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의 견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집단에서는 체벌이 효과가 없다에 4.4%로 응답한 반면에 학생집단에서는 40.3%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체벌을 받아들이는 학생집단에서 체벌의 효과성이 교사집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의 행사에 대해 그 효과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체벌이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보았다.

체벌효과의 지속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체벌효과의 지속정도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순간적	18 (7.3)	352 (55.6)	370 (41.9)
②단기적	161 (64.9)	237(37.4)	398 (45.1)
③장기적	40 (16.1)	19 (3.0)	59 (6.6)
④지속적	29 (11.7)	25 (3.9)	54 (6.2)
계	248	633	881
df	3		
χ^2	192.26		
P	***0.0000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견해로는 체벌 효과의 지속성은 단기적(45.1%)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많았고, 순간적이다(41.9%), 장기적이다(6.6%)순으로 나타났다. 순간적이다의 경우는 교사와 학생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사집단에서는 7.3%인 반면 학생집단에서는 5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결과로 보아 체벌의 필요성을 높게 인정은 하고 있으나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체벌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장기적(6.6%)이라기 보다는 순간적(41.9%)이다, 단기적(45.1%)이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것은 체벌의 지속정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을 가하는 교사와 체벌을 받아들이는 학생집단 사이에 친화와 협력을 통해 그 지속정도를 연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벌을 가하기전 교사와 학생간에 친화와 협력의 관계가 우선시 될 필요가 있겠다.

김정렬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사가 체벌을 사용한 후 나타나는 체벌 효과의 지속정도는 단기적이다라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³⁵⁾

4) 체벌효과의 영역

“체벌이 어느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까?”라는 설문문의 응답결과는 <표 9>에서와 같다.

전체적인 경향은 나쁜 습관의 교정(33.93%), 학습태도(30.6%)의 형성 및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교사집단인 경우는 나쁜 습관 교정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습태도면에서 29.0%, 나쁜 성격 교정 14.1%, 성적향상면 2.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인 경우는 학습태도면 31.3%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유지면 22.7%, 나쁜 습관 교정 26.1%, 나쁜 성격 교정면 13.1%, 성적향상면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가 나쁜 습관의 교정에 더 강조점을 두고 나쁜 성격의 교정을 덜 강조하는 반면, 학생은 나쁜 습관 교정과 학습태

35) 김정렬(1996), “국민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p.45.

도면에서 체벌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체벌이 교사의 권위유지면에 효과적이다에 관한 반응에 있어서는 교사 0.4%에 불과하였으나 학생들은 16.4%로 반응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체벌행위의 상당부분이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권위유지를 위해 체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체벌을 가할때의 교사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9> 체벌효과의 영역

구 분 반 응 구 분	교 사 N(%)	학 생 N(%)	전 체 N(%)
① 학습태도면	72 (29.0)	198 (31.3)	270 (30.6)
② 성적향상면	6 (2.4)	43 (6.8)	49 (5.5)
③ 나쁜성격 교정	35 (14.1)	83 (13.1)	118 (13.3)
④ 나쁜습관 교정	134 (54.0)	165 (26.1)	299 (33.9)
⑤ 교사의 권위유지	1 (0.4)	144 (22.7)	145 (16.4)
계	248	633	881
df	4		
χ^2	101.67		
P	***0.0000		

2. 체벌실태

1) 체벌 경험의 여부

체벌한 경험(체벌을 받은)이 있습니까?라는 설문문의 응답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의 91.9%가 체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집단에서는 98.8%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집단에서는 89.3%가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 처럼 학교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체벌 경험의 여부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있다	245 (98.8)	565 (89.3)	810(91.9)
② 없다	3 (1.2)	68 (10.7)	71(8.1)
계	248	633	881
df	1		
χ^2	20.59		
P	***0.0000		

2) 체벌을 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체벌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는 <표 11>과 같다.

체벌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습태도가 나쁠때(21.3%)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34.2%) 체벌을 많이 하게 된다고 나타나 일반적으로 정의적인 면과 지적인 면에서 모두 체벌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학습태도가 나쁠때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가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간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체벌을 가하는 경우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학습태도가 나쁠때	42 (16.9)	146 (23.1)	188 (21.3)
②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때	135 (54.4)	166 (26.2)	301 (34.2)
③ 약속,규칙을 위반 및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67 (27.0)	104 (16.4)	171 (19.4)
④ 시험성적이 떨어졌을때		123 (19.4)	123 (13.9)
⑤ 기타	4 (1.6)	94 (14.8)	98(11.1)
계	248	633	881
df	4		
χ^2	131.19		
P	***0.0000		

3) 체벌의 기준

학교에서 교사가 행하는 체벌 현상을 놓고 교사와 학생 집단간의 판단수준으로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다.

이 조사는 교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체벌의 기준에 관하여 밝히도록 했고, 학생은 체험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밝히도록하여 서로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64.5%로 나타났다. 이를 각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교사집단은 일관성 있는 체벌로 주장한 반면 체벌을 받는 학생집단은 체벌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70.5%)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에 16.6%반응함으로써 교사의 체벌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간의 서로 상반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교사가 아무리 일관성있게 체벌을 가한다고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 좀더 객관성있는 체벌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적인 체벌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김연호³⁶⁾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첫째, 체벌기준의 고시는 아동의 체벌이유 및 체벌에 대한 수용 태세에 도움이 된다. 아동과의 사전 약속하에 실시되는 체벌은, 아동의 반항적, 퇴행적 행동을 억제하고, 보다 긍정적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체벌기준 고시 집단의 아동이 미고시 집단의 아동보다 교사의 체벌을 교육적 배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체벌기준에 따른 체벌이 교사의 감정 자제에도 도움이 되며, 아동의 건전한 교사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체벌의 기준

구 분 반 응 구 분	교 사 N(%)	학 생 N(%)	전 체 N(%)
①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한다.	123(49.6)	82 (13.0)	205 (23.2)
②기준이 상황따라 다르다.	122 (49.2)	446 (70.5)	568 (64.5)
③우발적으로 한다.	3 (1.2)	105 (16.6)	108 (12.3)
계	248	633	881
df	2		
x ²	149.69		
P	***0.0000		

4) 체벌의 과정

학교 교육활동에서 체벌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는 <표 13>과 같다.

36) 김연호(1983), 앞의 논문, p.32.

〈표 13〉 체벌의 과정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벌 받을 이유를 인식시킨 다음 체벌한다.	212 (85.5)	427 (67.5)	639 (72.5)
② 체벌 후에 벌한 이유를 밝힌다..	12 (4.8)	20 (3.2)	32 (3.6)
③ 체벌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한다..	23 (9.3)	147 (23.2)	170 (19.2)
④ 체벌로 끝낸다.	1 (0.4)	39 (6.2)	40 (4.5)
계	248	633	881
df	3		
χ^2	40.35		
P	***0.0000		

〈표 13〉에서 보는 것 처럼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체벌의 과정에서 벌 받을 이유를 먼저 인식시킨 다음 체벌한다(72.5%)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 순으로는 체벌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한다(19.2%), 체벌로써 끝낸다(4.5%), 체벌 후에 벌한 이유를 밝힌다(3.6%)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체벌을 가할 때는 벌 받을 이유를 인식시킨 다음에 벌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교사집단(85.5%)이 학생집단(67.5%)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체벌과정은 학생들에게 체벌의 이유를 밝힘으로써 학생을 이해시키고 체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체벌의 방법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체벌방법에 관한 결과는 <표 14-1>, <표14-2>, <표14-3>과 같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빈번하게 행해지리라 기대되는 12개의 반응 가운데

데서 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벌방법을 순서대로 3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교사는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린다가 30.6%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엉덩이를 때린다 18.5%, 손들고 서게 한다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인 경우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벌 방법으로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린다에 53.2%의 수준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체벌은 엉덩이를 때린다 32.2%,였으며 엎드려 뺨혀 시킨다 3.9%는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1〉 1순위로 많이 사용하는 체벌방법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린다.	76(30.6)	337(53.2)	413(46.8)
② 엉덩이를 때린다.	60(24.2)	111(17.5)	171(19.4)
③ 종아리를 때린다.	21(8.5)	20(3.2)	41(4.6)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	2(0.8)	25(3.9)	27(3.0)
⑤ 손으로 등이나 허리를 때린다.	1(0.4)	7(1.1)	8(0.9)
⑥ 알밤을 준다.	5(2.0)	24(3.8)	29(3.2)
⑦ 꿇어 앉힌다.	26(10.5)	11(1.7)	37(4.1)
⑧ 엎드려 뺨혀 시킨다.	7(2.8)	11(1.7)	18(2.0)
⑨ 손들고 서게 한다.	17(6.9)	6(0.9)	23(2.6)
⑩ 눈감고 반성하게 한다.	15(6.0)	9(1.4)	24(2.7)
⑪ 벌 청소를 시킨다.	3(1.2)	4(0.6)	7(0.7)
⑫ 소리를 지르거나 말로 질책한다	15(6.0)	68(10.7)	83(9.4)
계	248	633	881
df	11		
χ^2	118.89		
P	***0.0000		

〈표 14-2〉 2순위로 많이 사용하는 체벌방법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린다.	26(10.5)	111(17.5)	137(15.5)
② 엉덩이를 때린다.	46(18.5)	204(32.2)	250(28.3)
③ 종아리를 때린다.	25(10.1)	73(11.5)	98(11.1)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	2(0.8)	14(2.2)	16(1.8)
⑤ 손으로 등이나 허리를 때린다.	3(1.2)	26(4.1)	29(3.2)
⑥ 알밤을 준다.	25(10.1)	46(7.3)	71(8.0)
⑦ 꿇어 앉힌다.	35(14.1)	39(6.2)	74(8.3)
⑧ 엎드려 뺨혀 시킨다.	16(6.5)	41(6.5)	57(6.4)
⑨ 손들고 서게 한다.	34(13.7)	17(2.7)	51(5.7)
⑩ 눈감고 반성하게 한다.	17(6.9)	15(2.4)	32(3.6)
⑪ 벌 청소를 시킨다.	7(2.8)	3(0.5)	10(1.1)
⑫ 소리를 지르거나 말로 질책한다	12(4.8)	44(7.0)	56(6.3)
계	248	633	881
df	11		
χ^2	96.62		
P	***0.0000		

〈표 14-3〉 3순위로 많이 사용하는 체벌방법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린다.	29(11.7)	64(10.1)	93(10.5)
② 엉덩이를 때린다.	23(9.3)	74(11.7)	97(11.0)
③ 종아리를 때린다.	38(15.3)	84(13.3)	122(13.8)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	5(2.0)	45(7.1)	50(5.6)
⑤ 손으로 등이나 허리를 때린다.	5(2.0)	36(5.7)	41(4.6)
⑥ 알밤을 준다.	16(6.5)	69(10.9)	85(9.6)
⑦ 꿇어 앉힌다.	25(10.1)	53(8.4)	78(8.8)
⑧ 엎드려 뺨혀 시킨다.	16(6.5)	88(13.9)	104(11.8)
⑨ 손들고 서게 한다.	44(17.7)	38(6.0)	82(9.3)
⑩ 눈감고 반성하게 한다.	15(6.0)	28(4.4)	43(4.8)
⑪ 벌 청소를 시킨다.	23(9.3)	20(3.2)	43(4.8)
⑫ 소리를 지르거나 말로 질책한다	9(3.6)	34(5.4)	43(4.8)
계	248	633	881
df	11		
χ^2	69.94		
P	***0.0000		

6) 체벌의 장소

체벌을 주로 하는 장소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여러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벌을 행하는 경우 (53.8%)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잘못을 행한 현장에서 체벌하는 경우가 30.7%이며, 교사와 당사자만 있는 조용한 곳 8.0%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들인 경우는 잘못이 행해진 현장에서 바로 체벌을 행한다고 한 반응 (57.3%)이 가장 높았으며 여러 학생들 앞이 25.4%, 교사와 당사자만 있는 곳 1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인 경우는 64.9%가 여러 학생들 앞에서 체벌이 이루어진다고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잘못이 행해진 현장에서 20.4%,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9.8%였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체벌 장소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잘못이 행해진 현장.	142 (57.3)	129 (20.4)	271 (30.7)
② 여러 학생들 앞(교실)	63 (25.4)	411 (64.9)	474 (53.8)
③ 여러 선생님들 앞 (교무실).	3 (1.2)	62 (9.8)	65 (7.3)
④ 교사와 당사자만 있는 곳.	40 (16.1)	31 (4.9)	71 (8.0)
계	248	633	881
df	3		
χ^2	176.22		
P	***0.0000		

7) 체벌 후의 심정

체벌 후의 심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체벌 후의 심정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만족스럽다.	9 (3.6)	12 (1.9)	21 (2.3)
②후회스럽다..	115 (46.4)	230 (36.3)	345 (39.1)
③그저 그렇다..	121 (48.8)	257 (40.6)	378 (42.9)
④모르겠다.	3 (1.2)	134 (21.2)	137 (15.5)
계	248	633	881
df	3		
χ^2	55.26		
P	***0.0000		

체벌 후에 느끼는 심정은 일반적으로 그저 그렇다(그냥 담담하다)에 42.9%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 후회스럽다에 그 반응이 각각 46.4%, 36.3%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체벌을 가한 입장에서 체벌을 가한 후에 마음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체벌과정에서의 감정개입정도

체벌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벌의 감정개입 정도를 비교해 보면 가끔 개입된다(50.3%), 많이 개입된다(28.8%),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17.4%)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교사집단에서는 가끔 개입된다(51.2%),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39.5%),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7.3%), 많이 개입된다(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집단에서는 가끔 개입된다(50.1%), 많이 개입된다(39.3%),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8.8%),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를 보면 체벌시 교사의 감정이 많이 개입된다는 반응에 대해서 학생집단은 39.3%로 나타나 교사집단의 2.0%와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체벌이 대체로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사의 필요를 반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때문에 사려깊은 판단에 의해 행해지기 보다는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교사 자신도 가끔 개입된다에 50.1%의 반응수준으로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수습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표 17〉체벌과정의 감정개입정도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많이 개입된다.	5 (2.0)	249 (39.3)	254 (28.8)
② 가끔 개입된다.	127 (51.2)	317(50.1)	444 (50.3)
③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98 (39.5)	56 (8.8)	154 (17.4)
④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18 (7.3)	11 (1.7)	29 (3.2)
계	248	633	881
df	3		
χ^2	55.26		
P	***0.0000		

9)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분에 따라 체벌이 달라진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반응결과는 <표 18>과 같다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달라진다 36.5%, 조금 달라진다 46.1%,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1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3.8%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교사집단에서는 조금 달라진다는 56.9%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극소수는 많이 달라진다는 3.6%의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약 60%정도에 따라 체벌이 달라진다고 시인하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학생집단에서는 교사의 체벌이 기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49.4%, 조금 달라진다는 42.0%의 반응을 보여 학생들은 교사의 체벌이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견해가 91.4%로 교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견해 차이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분에 따라 체벌이 달라진다는 견해는 82.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체벌이 기분에 많이 좌우되고 있으며 체벌의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체벌이 교사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일관성의 결여로 나아가서는 체벌의 효과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체벌로 인해 학생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표 18〉 체벌과 기분과의 관계

반응구분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많이 달라진다.		9 (3.6)	313 (49.4)	322 (36.5)
② 조금 달라진다.		141 (56.9)	266 (42.0)	407 (46.1)
③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86 (34.7)	32 (5.1)	118 (13.3)
④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12 (4.8)	22 (3.5)	34 (3.8)
계		248	633	881
df		3		
χ^2		228.43		
P		***0.0000		

10) 체벌의 관점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체벌할 때 그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동기를 중시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체벌의 관점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과정을 중시.	196 (79.0)	190 (30.0)	386 (43.8)
②결과를 중시.	52 (21.0)	443(70.0)	495 (56.1)
계	248	633	881
df	1		
χ^2	171.92		
P	***0.0000		

<표 19>에 의하면 전체적인 경향은 결과를 중시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56.1%)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으로 비교해 보면 교사집단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반응이 79.0%로 높게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학생집단에서는 교사들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중요하게 여긴다(30.0%)기 보다는 나쁜 행동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70.0%)에 높은 반응이 나타나 교사집단과 그 반응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교사의 체벌 관점이 학생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그러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으며 문제 행동의 동기나 원인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필요할 것이다.

11) 체벌을 가하는 시기

체벌을 가하는 시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구분을 ①그 즉시 벌을 준다, ② 기회를 보아서 벌을 준다, ③상관없다 등 세가지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0>과 같다.

체벌을 가하는 시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표 20>에서 보는 것처럼 기회를 보아서 벌을 준다 56.2%, 그 즉시 벌을 준다가 37.0%로 나타났다.

교사집단은 그 즉시 벌을 준다는 60.9%로 높게 반응하였고 학생집단에서는 63.7%가 교사들이 기회를 보아서 벌을 준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표 20> 체벌을 가하는 시기

반응 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그 즉시 벌을 준다	151(60.9)	175(27.6)	326(37.0)
②기회를 보아서 준다	95(38.3)	403(63.7)	498(56.2)
③상관없다	2(0.8)	55(8.7)	57(6.4)
계	248(100.0)	633(100.0)	881
df	2		
χ^2	90.59		
P	0.0000		

12) 체벌 후 항의에 대한 경험여부와 그 원인

체벌로 인한 항의의 경험 여부는 <표 21>과 같고, 항의의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경향은 항의한(받은)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3.4%로 항의를 한(받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의를 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항의의 원인으로서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적이었기 때문(4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벌이 지나쳤기 때문(32.9%), 방법이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17.9%)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체벌에 있어 감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에는 학생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체벌이 지나쳤기 때문에는 학생보다 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간에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체벌후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한) 경험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있다	47(19.0)	187(29.5)	234(26.5)
②없다	201(81.0)	446(70.5)	647(73.4)
계	248(100.0)	633(100.0)	881
df	1		
χ^2	9.71		
P	0.0018		

〈표 22〉 체벌을 가했을 때 항의를 받은 이유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교육적인 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2(4.2)	17(9.0)	19(8.1)
②감정적이었기 때문에	6(12.7)	90(48.1)	96(41.0)
③방법이 적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12(25.5)	30(16.0)	42(17.9)
④체벌이 지나쳤기 때문에	27(57.4)	50(26.7)	77(32.9)
계	47(100.0)	187(100.0)	234
df	3		
χ^2	20.09		
P	0.0002		

13) 체벌 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

체벌 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가 체벌을 가한 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서적 감정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는 경우가 46.3%,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경우가 33.5%, 아주 나빠졌다는 경우가 10.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교사들은 체벌 후 학생과의 정서적 관계에서 전과 다름이 없었다에 그 비율이 66.1%로 이에 반해서 학생 집단에서는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경우가 43.1%로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진 경우나 아주 나빠진 경우가 모두 44.1%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체벌할 때의 교사의 마음가짐이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할 때 마음가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체벌을 가한 후 학생과 인간관계의 양상

반응구분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친근해졌다.		59(23.8)	25(3.9)	34(9.5)
②전과 다름이 없다		164(66.1)	244(38.5)	408(46.3)
③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23(9.3)	273(43.1)	296(33.5)
④아주 나빠졌다		2(0.8)	91(14.3)	93(10.5)
계		248(100.0)	633(100.0)	881
df		3		
χ^2		194.98		
P		0.0000		

3. 體罰에 대한 사용의지

1) 앞으로의 교육활동에서 체벌의 사용의사

앞으로의 교육활동에서 체벌 사용의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앞으로 교육활동에서 체벌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겠다는 경우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시에 활용하겠다는 경우는 34.3%이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13.2%로 나타났다.

교사집단에서는 필요시 체벌을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겠다 38.7%, 사용하지 않겠다 4.0%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에서 체벌을 필요시 사용하겠다는 반응은 학생들의 2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사가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면서도 체벌을 되도록 자제해야겠다는 것은 체벌이 교육방법에 있어서 최선이 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최후 수단인 것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집단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교사들이 체벌을 자제하였으면 좋겠다는 경우에 48.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문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체벌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체벌 외의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34.3%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에는 13.28%를 보였다.

〈표 24〉 앞으로의 교육활동에서 체벌의 사용의사

반응구분 \ 구분	교사 N(%)	학생 N(%)	전체 N(%)
① 필요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142(57.3)	161(25.4)	303(34.3)
②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였으면 좋겠다	96(38.7)	327(51.7)	423(48.0)
③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0(4.0)	107(16.9)	117(13.2)
④ 잘 모르겠다	0(0.0)	38(6.0)	38(4.3)
계	248(100.0)	633(100.0)	881
df	3		
χ^2	95.81		
P	0.0000		

2) 체벌금지 방안에 대한 견해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98년부터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일체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그 응답 결과는 <표 25>와 같다.

체벌 금지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찬성한다는 경우가 3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반대한다는 경우가 32.1%, 그저 그렇다는 경우는 25.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집단에서는 반대한다 81.9%, 그저 그렇다 10.1%, 찬성한다 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집단에서는 찬성한다 52.3%, 그저 그렇다 32.2%, 반대한다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처럼 체벌 금지 방안에 대한 교사집단은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학생집단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서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표 25〉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98년도부터 체벌을 금지 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반 응 구 분	교 사 N(%)	학 생 N(%)	전 체 N(%)
①찬성한다	18(7.3)	331(52.3)	349(39.6)
②반대한다	203(81.9)	81(12.6)	283(32.1)
③그저그렇다	25(10.1)	204(32.2)	229(25.9)
④기타	2(0.8)	18(2.8)	20(2.2)
계	248(100.0)	633(100.0)	881
df	3		
χ^2	393.86		
P	0.0000		

3) 앞으로의 체벌사용에 대한 교사의 관점

앞으로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체벌사용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체벌행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응답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앞으로의 체벌사용에 대한 교사의 관점

		문 항				df	x ²	P
		①교사자신의 교육관에 맡긴다	②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	③법규적 명문화가 필요하다	계			
성 별	남	113(81.3)	18(12.9)	8(5.8)	139(100.0)	2	1.31	0.5148
	여	92(84.4)	14(12.8)	3(2.8)	109(100.0)			
연 령 별	20대	9(69.2)	4(30.8)		13(100.0)	8	14.28	0.0748
	30대	109(84.5)	15(11.6)	5(3.9)	129(100.0)			
	40대	51(83.6)	6(9.8)	4(6.6)	61(100.0)			
	50대	30(83.3)	4(11.1)	2(5.6)	36(100.0)			
	60대	6(66.7)	3(33.3)		9(100.0)			
경 력 별	5년 이하	20(83.3)	4(16.7)		24(100.0)	8	2.74	0.9492
	6-10년	74(83.8)	12(13.5)	3(3.4)	89(100.0)			
	11-15년	31(83.8)	4(10.8)	2(5.4)	37(100.0)			
	16-20년	40(83.3)	5(10.4)	3(6.3)	48(100.0)			
	21년 이상	40(80.0)	7(14.0)	3(6.0)	50(100.0)			
계		205(82.6)	32(12.9)	11(4.4)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의 체벌사용을 교사 자신의 교육관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비율은 82.6%였으며,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12.9%, 법규적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4.4%에 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교사의 성별로는 남자가 81.3%, 여자는 84.4%로 각각 반응하였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30대 교사가 경력별에 있어서는 6-10년 교사가 체벌사용에 대해 교육자 자신의 교육관에 맡겨야 된다는 데 높게 반응하였다.

V. 結論 : 要約 과 提言

본 연구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체벌의 실태를 살펴보고,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태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교육방법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체벌에 대한 견해 및 체벌의 효과, 체벌의 실태, 체벌에 대한 태도 및 체벌 사용의지 등 3개 영역 2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주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248명, 학생 63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빈도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P < 0.001 \sim P < 0.01$ 수준에서 χ^2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에 관한 일반적 견해와 체벌의 효과면은 다음과 같다.

체벌의 필요성 여부에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86.3%로 높게 나타나 교사와 학생 모두 체벌의 필요성을 높게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생활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체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결과는 아직도 학교 교육활동에서 체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효과면에서 지속적이지 못하므로(57.1%)체벌을 부정하는 입장이었고 학생집단에서는 설득을 통해서도 잘못된 행동을 고칠수 있기 때문(36.5%)이라고 보았다. 체벌을 부정하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에서는 체벌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95.5%가 효과가 있다고 보인 반면 학생들은 59.7%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학생들 보다 교사들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체벌의 효과영역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나쁜습관교정면(54.0%)이난 학습태도 교정면(3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체벌

을 나쁜습관이나 학습태도 교정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벌 효과시 지속성을 정기적이다(6.6%)는 경우보다 단지적(45.1%), 순간적(41.9%)이라는 경우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체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체벌실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체벌을 한(받은)경험이 91.9%로 나타나 체벌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체벌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습태도가 나쁠때와 옳지못한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을 많이하게 된다고 나타나 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에서 체벌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체벌 기준이 다르다(64.4%)고 나타났다. 또한 기준없이 우발적으로 체벌한다에서는 교사보다는 학생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구분해서 살펴보면 교사들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체벌한다에(49.6%)로 반응한 반면 체벌을 받는 학생집단에서는 체벌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교사가 아무리 일관성 있게 체벌을 가한다고 하여도 체벌을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체벌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게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체벌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체벌과정에 대해서는 교사와 모두 벌 받을 이유를 인식시킨 다음 체벌하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학교현장에서 체벌과정은 먼저 체벌이유를 밝혀 학생을 이해시키고 체벌을 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빈번하게 행해지리라 기대되는 12개의 반응 가운데서 3개를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한바 전체적으로 손바닥을 매나 자로 때린다(46.8%)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엉덩이를 때린다(28.3%) 종아리를 때린다(13.8%) 순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장소는 주로 학생들 앞에서 하며, 체벌 후의 심정으로는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를 집단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학생집단보다 교사집단에서 후회스럽다에 46.4%의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체벌 후의 교사의 심정이 가볍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벌후의 심정을 알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그저 그렇다(그냥 담담하다)에 42.9%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나 집단별로 비교했을때는 학생들보다 후회스럽다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체벌에서의 감정개입 정도는 교사와 학생 모두 가끔 개입된다(50.3%)에 높은 반응을 보여 체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분에 따라 체벌의 사용이 조금 달라진다(46.1%)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체벌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를 중시(56.1%)하는 쪽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체벌의 시기는 기회를 보아서 준다(56.5%)의 반응이 높았다.

체벌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받은 사례는 두 집단 모두 없다(73.4%)라는 태도를 나타내어 항의를 한(받은) 사례가 적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항의를 한(받은) 사례(26.5%)중 항의의 주된 원인은 감정적이었기때문(41.0)과 체벌이 지나쳤기때문(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나(46.3%) 교사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으로 (33.5%) 나타났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활동에서 체벌사용에 대한 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앞으로의 교육활동에서 체벌을 필요시 사용하겠다(57.3%)고 적극적인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되도록 자제하겠다(38.7%)의 반응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교사들이 체벌사용을 되도록 자제해 주길 (51.7%)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체벌행위를 교사 자신의 교육관에 맡겨야한다(32.6%)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법규적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4.4%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상 체벌을 한다지만, 그 결과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이 사실이므로 체벌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체벌은 학생들의 행동수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교사는 인격적인 강화를 지도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교육적인 의도하에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은 되도록 줄여 나가도록 하고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체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사는 체벌 행사에 있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겠다.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까지 신중한 판단하에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을 피교육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감정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체벌은 교사의 감정으로 쉽게 가해지기 쉬운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셋째, 체벌시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 애정적 유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인간적, 애정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체벌로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일정한 체벌기준을 마련하여 체벌의 일관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겠다. 가령, 교사는 어느 날은 과도하게 떠드는 것을 벌하고 그 다음날은 그냥 넘기어서는 안된다. 규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따르지 않는 일관성의 결여는 일부 학생들의 문제를 높이는 원인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단행본 >

- 권오익(1976), “체벌의 탈교육적 역기능”, 「교육연구」.
- 김용기(1995), 「서양교육사」, 문헌사.
- 김은산(1983), “자녀교육과정에서의 체벌문제”, 「새교육」.
- 김인회(1994), 「새시대를 위한 교육의 이해」, 문음사.
- 김정규, 권낙원(1988), 「교사와 교육」, 형설출판사.
- 김정환(1982), 「전인교육론」, 세영사.
- —————, 「페스탈로찌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 —————(1983),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본 체벌론”, 「새교육」.
- 손인수(1987), 「교육사 교육철학 연구」, 문음사.
- 안상원(1983), 「교육사」, 재동문화사.
- —————(1963), 「한국 서양 교육사」, 박영사.
- 이광린(1968), “조선의 사부학당”, 「역사학보」 제16집.
- 이성무(1968),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 36집.
- 이성진(1981), 「학교에서의 행동수정」, 배영사.
- —————, 「행동수정의 원리」, 현대교육출판사.
- Peters, R. S. 저, 이홍우 역(1981),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 Giontt, H. 저, 정우현 역(1977), 「교사와 학생」, 익문사.
- 차석기(1981), 「서양교육사」, 집문당.
- 忠原豊 저, 박준의 역(1982), 「학교체벌」, 정민사.

< 논문 >

- 김정렬(1996), “국민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태도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 김연호(1983), “체벌의 수용도가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신규(1989),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 성립근거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

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세준(1994), “국민학교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청환(1976), “국민학교에서의 훈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동욱(1976), “민주주의와 교육”, 학생지도 제18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정금선(1976), “체벌의 교육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진자(1993),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

- 동아일보(1988. 7.16), “일본 교육계 체벌논쟁 재연”.
- 서명원(1972), 「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 이희승(1975),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Abstract>

**A Study on Teacher' and Students' Attitudes about
Corporal Purnishment
--- in the Middle Schools in Chejushi ---**

Kim, Jin Hee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aspects of corporal purnishment in school, analyze the attitudes of teachers and students about the purnishment and propose a plan to improve educational system. I made twenty-three questions in three sections about the opinions, effects, aspects, attitudes and ues-intention of corporal purnishment. I researched 248 teachers and 638 students by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produced by percentage and χ^2 was done in the range of $p < 0.001 \sim p < 0.00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teachers and students (86.0%) admit the necessity of corporal purnishment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for discipline. And most teacher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generally use corporal punishment when students misbehave (34.1%) or their learning attitudes in classes are bad (21.3%).

Secondly, corporal punishment is effective to correct their bad habits and learning attitudes in classes, but the durability of the effectiveness of corporal punishment is temporary. As for the method of corporal punishment : First, they hit palms by rods or rulers. Secondly, they hit their buttocks. Thirdly they bit their calves, according to the percentage.

Thirdly, the standard of corporal punishment major depends on the situation (64.4%). Corporal punishment is applied after teachers have students recognize why they use it.

Fourthly, it is revealed that emotion is involved during corporal punishment. More percentage of students' groups responds this way than teachers' group. After the punish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and students is the same as before (46.34%), but the students feel awkward (43.2%).

Fifthly, the point of view of corporal punishment focuses on the results. There are not many objections to corporal punishment, and the objections are caused by teacher's emotional punishment or excessive punishment (32.9%).

Sixthly, in the question of " how much would you use corporal punishment? ", they would use if necessary (57.3%), and use it as little as possible (51.7%). As for the banning of corporal punishment in 1998, teacher's group object (81.9%) and students' group agree (52.3%). Th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m.

I suggest this based on the results above.

Although they use corporal punishment in the name of education, it has many side effects, so you should be prudent. The punishment in school may not be the best way to correct students' behavior. Teachers should help students build up their character, consider each situation individually, and look for an appropriate way to discipline them.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should be reduced and avoided. When it's hard to avoid using the punishment you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irst, teachers should be sincere during the punishment and they need to have

students recognize that they choose the punishment prudently.

Secondly, teachers should discover ways to control their emotions before the punishment in order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emotional involvement.

Thirdly, humane and affectionate ti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precede the punishment.

Fourthly, coherent and fair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with an established standard of corporal punishment.



질문지A(교사용)

이 질문지는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실태와 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평상시 느끼신 바를 솔직히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진희



* 해당하는 곳 ()안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자 () ② 여자 ()
2. 선생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경험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 골라 () 안에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합되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란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체벌에 대한 견해

4. 학교 교육에서 체벌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필요할 때도 있다. ③ 필요없다

5.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번 질문에서 보기 ①이나 ②에 응답하신 분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생활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② 학습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③ 기타()

6.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번 질문에서 보기 ③에 응답하신 분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② 효과면에 지속적인지 못하기 때문에
③ 설득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으므로
④ 기타()

7. 체벌의 효과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아주 효과가 있다 ② 효과가 있다 ③ 효과가 없다

8. 체벌은 그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순간적이다(체벌할 때 그때 뿐이다) ② 단기적이다
③ 장기적이다 ④ 지속적이다

- ③ 종아리를 때린다()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
- ⑤ 등이나 허리를 손으로 때린다() ⑥ 알밤을 준다()
- ⑦ 꿇어 앉힌다() ⑧ 엎드려 뺨쳐 시킨다()
- ⑨ 손들고 서게 한다 ⑩ 눈감고 반성하게 한다
- ⑪ 벌 청소를 시킨다 ⑫ 소리를 지르거나 질책한다

15. 체벌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① 잘못이 행해진 현장 ② 여러 학생들 앞(교실 등)
- ③ 여러 선생님들 앞(교무실 등) ④ 교사와 당사자만 있는 곳

16. 체벌 후의 선생님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만족스럽다 ② 후회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모르겠다

17. 체벌과정에서 선생님의 감정개입 정도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많이 개입된다 ② 가끔 개입된다
- ③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④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18.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체벌이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 ① 많이 달라진다 ② 조금 달라진다
- ③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④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19. 선생님의 체벌 관점은 어떠하십니까?()

- ① 동기를 중시한다 ② 결과를 중시한다

20. 학생이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그 즉시 벌을 준다 ② 기회를 보아서 벌을 준다 ③ 상관하지 않는다

21. 선생님께서는 체벌 후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질문지B(학생용)

이 질문지는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실태와 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평상시 느끼신 바를 솔직히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진희



* 해당하는 곳 ()안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자 () ② 여자 ()
2. 학생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학생의 학교는?
① 여자중학교() ② 남자중학교() ③ 남녀공학()

*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 골라 () 안에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합되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란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 체벌에 대한 견해

4. 학교 교육에서 체벌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필요할 때도 있다. ③ 필요없다

5.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번 질문에서 보기 ①이나 ②에 응답하신 분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생활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② 학습지도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③ 기타()

6.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번 질문에서 보기 ③에 응답하신 분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② 효과면에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③ 설득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으므로
④ 기타()

7. 체벌의 효과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아주 효과가 있다 ② 효과가 있다 ③ 효과가 없다

8. 체벌은 그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순간적이다(체벌할 때 그때 뿐이다) ② 단기적이다
③ 장기적이다 ④ 지속적이다

- ③ 종아리를 때린다()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
- ⑤ 등이나 허리를 손으로 때린다() ⑥ 알밤을 준다()
- ⑦ 꿇어 앉힌다() ⑧ 옆드려 뺨혀 시킨다()
- ⑨ 손들고 서게 한다 ⑩ 눈감고 반성하게 한다
- ⑪ 벌 청소를 시킨다 ⑫ 소리를 지르거나 질책한다

15. 체벌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 ① 잘못이 행해진 현장 ② 여러 학생들 앞(교실 등)
- ③ 여러 선생님들 앞(교무실 등) ④ 교사와 당사자만 있는 곳

16. 체벌 후 학생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만족스럽다 ② 후회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모르겠다

17. 체벌과정에서 선생님의 감정개입 정도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많이 개입된다 ② 가끔 개입된다
- ③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④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18.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체벌이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 ① 많이 달라진다 ② 조금 달라진다
- ③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④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19. 선생님께서 체벌할 때 그 관점을 어디에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기를 중시한다 ② 결과를 중시한다

20. 여러분이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그 즉시 벌을 준다 ② 기회를 보아서 벌을 준다 ③ 상관하지 않는다

21. 체벌 후 선생님께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 항의를 한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였습니까?()
- ※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 분만 기입하십시오.
- ①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②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③ 방법이 적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④ 체벌이 지나쳤기 때문에
23. 체벌 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는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 ① 친근해졌다 ② 전과 다름이 없다
 ③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④ 아주 나빠졌다
24.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① 필요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②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였으면 좋겠다
 ③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④ 잘 모르겠다
25. 교육개혁위원회는 '98년도부터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기타()



감사합니다.